



빛으로 미래를 밝히는 기업

(주)비츠로테크



이상권 비츠로테크 사장

“비츠로테크는 기술적 불모지였던 국내 시장에 선진 기술을 도입, 보급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63년의 기업 역사를 갖고 있는 비츠로테크는 국내 전력산업과 함께 성장해왔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주)비츠로테크 이상권 대표는 국내 전력산업의 태동기에 설립되어 60여 년의 역사를 이룬 회사와 직원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1955년 설립된 비츠로테크의 처음 상호는 ‘광명전기제작소’였다. 이후 1982년 국내 최초로 7.2kV VCB 국산화에 성공하고 1990년대에는 자동절체개폐기(ATS)를 미국 GENERAC 사에 수출한 데 이어 1992년부터 차단기의 핵심 부품인 진공인터럽터(VI)를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하며 ‘빛의 속도’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상호를 (주)비츠로테크로 변경하고 코스닥(KOSDAQ)에 등록된 비츠로테크는 탁월한 경영 실적을 토대로 ISO인증 및 품질 경쟁력 50대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2006년에는 수출 1000만불탑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글로벌 조달선정기업으로, 2015년에는 두뇌 역량 우수전문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16년에는 우주항공, 플라즈마, 물리가속기 등 특수사업 분야를 위한 (주)비츠로넥스텍을 설립, 국내 최초로 액체 로켓 연소기 개발과 제작에 성공해 한전이 추진하는 친환경개폐장치용 170kV 진공차단기 개발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가상 현실을 이용한 전기 기기의 감시 방법, 가스 절연과 고체 절연을 병용하는 복합 절연 방식의 개폐 장치 및 전원 단자 결합 방법 등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비츠로테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필요한 저압차단기반과 고압차단기반 등을 제작하며 국내 원전산업을 지탱하고 있다.

비츠로테크 이상권 대표는 “현재 보유한 기술을 더욱 진전시키는 한편 친환경, 신재생, HVDC 등 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렌드를 리딩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통해 인류 사회 및 전력산업에 기여하는 비츠로테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 🌟